

2009학년도 9월 고2 전국연합학력평가 문제지

제 1 교시

언어 영역

성명		수험 번호					2			
----	--	-------	--	--	--	--	---	--	--	--

1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히 쓰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쓰고, 또 수험 번호와 답을 정확히 표시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고하십시오. 1점과 3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 (물음) 이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기예를 익히려면 기본기를 충실히 닦아야 한다.
- ②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 ③ 성취감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
- ④ 마니아가 되려면 세속적 욕망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한다.
- ⑤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을 찾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물음) 선생님과 상의한 후, 학생이 개요를 수정·보완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학생이 준비했던 '개요'	선생님이 예로 든 '웹툰'
<인터넷 속의 만화, '웹툰'의 세계> ■ 웹툰의 개념 - 웹(web) + 카툰(cartoon) ㉠ ■ 웹툰의 특징 - 마우스로 만화의 페이지 넘기기 ... ㉡ - 짧은 이야기 구성 ㉢ - 다양한 색깔 사용 ㉣ ■ 기타 ㉤	

- ① ㉠ : 현재의 웹툰은 세로가 긴 형태의 만화라는 점을 보완한다.
- ② ㉡ : ㉠을 활용하여 '스크롤바를 이용한 감상'으로 교체한다.
- ③ ㉢ : ㉡를 활용하여 '화면의 연속적 구성'으로 수정한다.
- ④ ㉣ : '클로즈업 기법 사용의 확대'도 함께 다룬다.
- ⑤ ㉤ : '맷글로 감상 남기기'를 추가한다.

3. (물음) 강연을 듣고 해결할 수 없는 의문은?

- ① 타구 놀이는 어떤 계층에서 향유했는가?
- ② 타구 놀이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는가?
- ③ 타구 놀이의 다른 명칭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④ 타구 놀이가 민간에서 크게 성행한 이유는 무엇인가?
- ⑤ 타구 놀이가 지배층에서 쇠퇴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 [4~5]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4. (물음) '아나운서'의 인터뷰 전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 ① 낯선 용어의 개념 짚고 넘어가기
- ② 초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기
- ③ 대담자의 말을 요약하며 질문 이어가기
- ④ 대담자와 다른 입장에서 의문 제기하기
- ⑤ 인터뷰의 취지 다시 확인하기

5. (물음) 다음은 인터뷰를 들은 청취자의 반응이다.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속담은?

'문화재 조사 상피(相避) 제도'의 취지는 () 것과 같이, 지자체와 조사 기관 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여 궁극적으로는 문화재를 보호하려는 데 있군.

- ① 팔이 안으로 굽는
- ② 강 건너 불구경하는
- ③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 ④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 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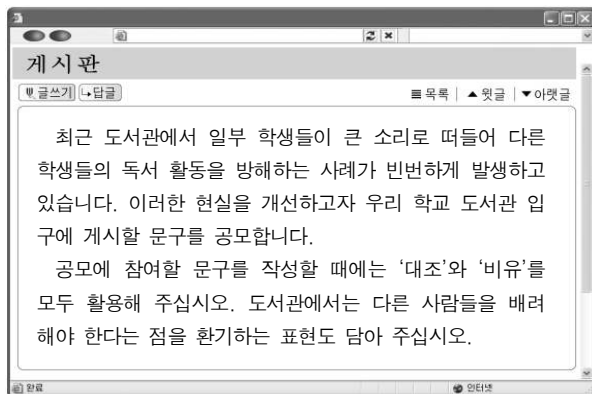
이제 듣기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6번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

6. '목표 설정과 추진'을 주제로 글을 쓰려고 한다. ㉠ ~ ㉣를 활용하여,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목표를 분명히 설정한 뒤에 일을 시작해야 한다.
 ② ㉠+㉢ : 일을 시작할 때는 언제 닥칠지 모를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③ ㉡+㉣ : 일을 추진하는 과정이 순탄할 수도, 험난할 수도 있다.
 ④ ㉡+㉣ : 목표 지점을 향해 가는 도중에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⑤ ㉢+㉣ : 고난에 직면했을 때에는 상황에 맞게 중간에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7. 다음은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조건을 모두 충족한 표현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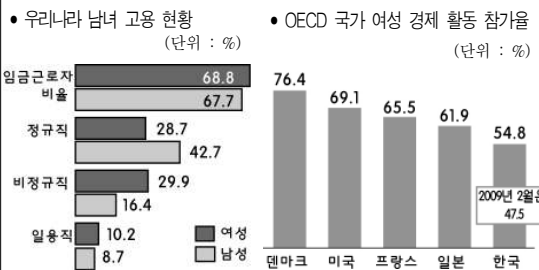
- ① 도서관에는 마음만 가지고 오세요. 책 읽는 친구들을 생각한다면 발자국 소리마저 두고 오세요.
 ② 도서관을 외면하는 친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숲처럼 고요한 도서관, 우리 함께 만들어 봐요.
 ③ 시끄러운 도서관과 조용한 도서관, 여러분은 어느 곳에 머물고 싶을까요? 고요한 지식의 바다, 이곳으로 오세요.
 ④ 도서관에서 대화는 이제 그만! 도서관에서는 여러분의 발자국 소리조차 친구의 독서 활동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⑤ 소곤대는 목소리는 거슬리지만 책장 넘기는 소리는 감미롭습니다. 숨소리조차 죽이며 책 읽는 여러분의 모습, 한 떨기 꽃입니다.

8. 다음은 '여성 고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보고서를 쓰기 위해 정리한 자료의 일부이다. 이를 토대로 쓸 보고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인터뷰 내용

- "집 근처 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려 했지만, 대기자만 10명이 넘어서는 육아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이 1년 뒤에나 들어올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어요. 할 수 없이 한 달에 100만원을 주고 육아 도우미를 구해야 했습니다."
- 진○○(여성 직장인) — 이○○(대학 교수)

2. 통계 자료(2007년, 통계청)



3. 국내·외 현황

- 국내 : 여성 고용 비율은 양적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나 질적인 면에서 고용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또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은 선진국보다 아직 낮다.
- 국외 : 복지 선진국에서는 여성 재취업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재고용 장려금 지급, 탄력적 근무 시간제 도입, 보육 등 고용 비용을 확대 및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① 고용 시장에서 여성의 열악한 지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우수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② 여성 고용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기업과 민간기업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③ 현행 여성 고용 정책이 고용을 늘리는 데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고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④ 여성의 경제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선진국보다 낮은 것을 문제로 지적하고, 직장가 가정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 지원 체계를 시급히 구축해야 함을 제시한다.

9. <보기>는 '산업 기술의 유출'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이를 수정·보완하거나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제목 : 산업 기술의 유출 문제와 그 대책

I. 서론 : 산업 기술의 유출 실태 ㉠

II. 본론

1. 산업 기술의 유출에 따른 문제점 ㉡

가. 매출 감소로 인한 기업의 피해 증가

나.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의 약화

2. 산업 기술의 유출 원인

가. 기술 개발자의 윤리 의식 부재

나. 피해 보상을 위한 절차 복잡 ㉢

다. 기술 유출에 따른 처벌 규정의 미흡

3.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가. ㉣

나. 신종 유출 수법에 대비한 보안 체계의 강화

다.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의 강화

III. 결론 : 기술 유출의 심각성에 대한 각성 촉구 ㉤

- ① ㉠에는 산업 기술을 유출하는 범죄자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제시한다.
- ② 글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의 하위 항목으로 '신기술 개발을 위한 환경 조성 미비'를 추가한다.
- ③ ㉢은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므로 '산업 기술에 대한 허술한 보안 체계'로 바꾼다.
- ④ ㉣에는 'II-2-가'를 고려하여 '기술 개발자에 대한 의식 교육의 기회 확대'라는 내용을 넣는다.
- ⑤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을 '산업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촉구'로 바꾼다.

10. 어휘를 분류하는 활동을 하면서 <표>를 완성하고자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구분		직업과의 관련성	
		있음	없음
대상에 대한 태도	긍정적		A
	부정적	B	C

- ① A에는 '막둥이'가 포함될 수 있어.
- ② B에는 '장사치'가 가능할 것 같아.
- ③ B에는 '봉급쟁이'도 포함시킬 수 있겠어.
- ④ C에는 '나무꾼'이 가능할 것 같아.
- ⑤ C에는 '얼뜨기'도 포함시킬 수 있겠어.

11. 다음은 한 학생이 학예전 담당 교사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이다. ㉠~㉤을 고쳐 쓰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늘 7교시에 학예전 개최와 관련하여 동아리 회장단 모임을 ㉠했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 그 중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룬 안건은 학예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동아리 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설문 조사 형식을 ㉣빌려 먼저 학생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의 의견이 이번 학예전에 충분히 반영되어 그 어느 해보다 알찬 행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학예전에서도 지난해처럼 선생님들의 멋진 공연을 보여 주십시오. 설문 조사 결과는 조만간에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① ㉠ : '오늘'이라는 시제를 고려하여 '했습니다'로 고친다.
- ② ㉡ : 문장 성분의 호응이 어색하므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로 바꾼다.
- ③ ㉢ : 문장의 연결이 자연스럽도록 접속어 '그래서'를 넣는다.
- ④ ㉣ : 문맥상 어휘의 사용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빌려'로 바꾼다.
- ⑤ ㉤ : 글의 흐름에 맞지 않으므로 바로 앞의 문장과 위치를 바꾼다.

12. <보기>에 나오는 '부사'의 특성에 대해 학습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몇 시간이 흐른 뒤 도착한 곳은 ㉠겨우 열 평 남짓한 간이 역이었다. 역사(驛舍) ㉡바로 옆 노점 아낙들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은아를 맞았다. '㉢설마 민우가 이곳에 있지는 않겠지.' 은아는 코스모스 활짝 핀 거리를 지나 언덕을 오르며 생각한다. ㉣부디 민우가 어디에 살고 있는 편안하게 지냈으면 하는 생각뿐이다. 오랫동안 ㉤못 만났지만, 은아의 마음속에 늘 머물러 있는 민우였다.

- ① ㉠은 수량을 나타내는 단어 앞에도 오는군.
- ② ㉡은 체언을 꾸며 주어 그 의미를 제한하고 있군.
- ③ ㉢은 부정적인 추측을 강조할 때 쓰이는군.
- ④ ㉣은 문장에서 놓이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군.
- ⑤ ㉤은 용언의 의미를 부정하는 기능을 하는군.

[13~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생명은 / 추운 몸으로 온다
별거벗고 언 땅에 꽃혀 자라는 / 초록의 겨울보리,
생명의 어머니도 먼 곳 / 추운 몸으로 왔다

진실도 /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
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온다

겨울 나무들을 보라
추위의 면도날로 제 몸을 다듬는다
잎은 떨어져 먼 날의 십리에 불려가고
줄기는 이렇듯이 / 충전 부싯돌임을 보라

금 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상한 살을 해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생명은 / 추운 몸으로 온다
열두 대문 다 지나온 추위로
하얗게 드러눕는 / 함박눈 눈송이로 온다

- 김남조, 「생명」 -

(나)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 나간 후
꿈틀거리는 ㉠ 검은 뱀발 때문이었다
뱀발에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왜 무릎을 꿇는 것일까
깊게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생명이 사는 곳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저 무위(無爲)한 해조들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과
각혈하듯 노을을 내뿜는 포구를 배경으로
성자처럼 뱀발에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 문정희, 「울포의 기억」 -

(다)

여보게 이웃들아, 산수(山水) 구경 가자꾸나.
답청(踏靑)은 오늘 하고, 욕기(浴沂)는 내일(來日) 하세.
㉡ 아침에 채산(採山)하고, 저녁에 조수(釣水)하세.
갓 발효하여 익은 술을 갈간(葛巾)으로 걸러 놓고,
㉢ 꽃나무 가지 꺾어, 썸을 하며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잠깐 불어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에 진다.

술동이(小童)가 비었거든 나에게 알려어라.
소동(小童) 아이에게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하여 시냇가에 혼자 앉자,
명사(明沙) 깨끗한 물에 잔 씻어 부어 들고,
청류(清流)를 굽어보니, 떠오르는 것이 도화(桃花)로다.
무릉(武陵)이 가깝도다, 저 들이 그곳인가?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여잡고,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에 펼쳐졌네.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펼친 듯,
엷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하구나.
㉤ 공명(功名)도 날 꺼리고, 부귀(富貴)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外)에 어떤 벗이 있을고?
㉥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헛된 생각 아니 하네.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하들 어떠하리.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 미음완보(微吟緩步) : 작은 소리로 읊으며 천천히 걸음.
* 연하일휘(煙霞日輝) :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
* 단표누항(簞瓢陋巷) : 한 소쿠리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

13.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자연을 매개로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연 풍광(風光)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 ④ 과거의 삶에 대한 회한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⑤ 고달픈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14. (가)와 (다)의 시상 전개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다) 모두 계절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 ② (가)와 (다) 모두 화자의 시선이 내면에서 외부로 이동하고 있다.
- ③ (가)는 (다)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정서가 변하고 있다.
- ④ (다)는 (가)와 달리 화자의 태도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 ⑤ (가)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다)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묘사하고 있다.

15. (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②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냉소적인 어조로 시적 대상과의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④ 화자가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⑤ 청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16. <보기>를 참고할 때, ㉠의 함축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 < 보 기 > —

‘검다’는 대개 ‘어둠, 죽음, 허무’ 등을 상징한다. 그러나 (나)에서는 강한 생명력을 품고 있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 ① 가슴 답답한 보랏빛 하늘 / 어둠이 몰아드는 검은 구름 너머로 / 비의 줄을 타고 나리는 / 꽃방울의 노래가 흘러나오도다
- ② 먼 길 떠나시던 / 아버지 발자국이 보인다 // 어두운 밤 홀로 흰 두루막자락 날리시며 / 검은 산(山) 넘어 넘어 / 먼 길 가시던 날
- ③ 쫓기듯 도망치듯 살아온 이에겐만 / 삶은 때로 애닦기도 하리 / 긴 능선 검은 하늘에 박힌 별 보며 / 길 잘못 든 나그네 되어 떠나려네
- ④ 수그러진다 수그러진다 / 악몽(惡夢)이 나타나는 머리 / 머리속 빈 들판에 불을 피우고 / 여러 번 막막히 었드렸던 오후 / 검은 연기 땅 위에 눕듯이
- ⑤ 더 큰 침묵을 향하여 / 걸어가 보아라 / 지리산 중턱에는 아직 눈과 바람이 남아 있지만 / 강 건너 복숭아밭의 검은 줄기들은 / 꿈의 문자(文字)들처럼 싱싱하다

17.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① ㉠ : 분주한 농촌의 일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② ㉡ : 풍치가 있고 멋스럽게 노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 ③ ㉢ : 자연에 동화되고 있는 화자의 정서가 담겨 있다.
- ④ ㉣ : 세속적 가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
- ⑤ ㉤ : 청빈한 생활을 지향하는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

18. (가)~(다)의 시적 공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언 땅’ : ‘초록의 보리’와 ‘겨울 나무’가 스스로를 단련하는 곳이다.
- ② (나)의 ‘빨밭’ : ‘피터거리’는 생명체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 ③ (나)의 ‘포구’ : ‘무위(無爲)한 해조음’이 밀려와 삶의 허무감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 ④ (다)의 ‘무릉(武陵)’ : ‘도화(桃花)’를 통해 화자가 연상한 공간이다.
- ⑤ (다)의 ‘들’과 ‘산’ : ‘봄빛도 유여(有餘)하구나’에서처럼, 봄기운이 충만한 곳이다.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하나의 예술 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로댕의 조각품, ‘생각하는 사람’에서 어떤 사람은 고뇌하는 지성인의 모습을 읽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연인을 잃고 깊은 시름에 잠긴 젊은이의 모습을 읽기도 한다. 그런데 하나의 예술 작품을 대상으로 이처럼 다양하게 해석하는 것은 적절한가?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비트겐슈타인의 ‘토끼/오리 그림’을 살펴보자.



옆의 그림을 보고 어떤 사람은 토끼를 그린 것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오리를 그린 것이라 한다. 하나의 형상이 동시에 토끼이며 오리일 수는 없지만, 관점에 따라 두 가지 형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른 외부 요인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옆의 그림만 가지고 생각할 때에는 이 그림을 보고 내린 토끼라는 해석과 오리라는 해석은 둘 다 타당하며, 전적으로 어떤 것이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것을 예술 작품의 해석에 적용해 보면, 한 작가가 창작한 예술 작품의 의미는 단일하지 않고 다양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오리만 살고 있는 강변에 살면서 토끼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 그림을 오리로 그린 것이다. 토끼가 살고 있는 산 속에 살면서 오리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예술가가 원래 작품에 부여한 의미는 하나이다. 그러므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이 한 작품을 두고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모순이다. 어떤 특정한 시공간과 상황에서 예술 작품이 창작된다는 점을 전제한다면, 그 예술 작품의 해석은 창작의 과정과 맥락을 모두 종합할 때 가능해진다. 이럴 때 비로소 해석은 유의미해지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작품에 대한 해석은 작품의 내재적 요소로만 파악하기 어렵고, 그 작품을 창작한 작가의 경험과 사상, 시대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아야 완전해진다.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와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예로 들면, 이 작품들을 둘러싸고 있는 창작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유일한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예술 작품의 해석은 작품의 단일한 의미를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지만 실제로 그 목적이 꼭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할 뿐 실제로 그것이 실현되기는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예술 작품의 단일한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예술 작품의 해석이란 그러한 이상을 추구하는 부단한 여정이기 때문이다.

19. 이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실현하기 어렵기에 현실에서 삼가야 할 예술 해석의 관점이다.
- ② 실현 불가능한 것이므로 마음속에 지녀야 할 예술 해석의 태도이다.
- ③ 실현할 수 없을지라도 현실에서 지향해야 할 예술 해석의 목표이다.
- ④ 언젠가 실현할 수 있기에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예술 해석의 방향이다.
- ⑤ 타당성이 부족할지라도 현실에서 실현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예술 해석의 방법이다.

20.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 중, 글쓴이의 주장과 가장 가까운 것은?

< 보 기 >



마르크 샤갈(Marc Chagall), 「나와 마을」 (1911년 작)

- ① 친근한 소재들을 사용하여 마을의 평온한 모습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야.
- ② 화가의 의도와 심리 상태, 당대의 예술 동향 등을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해야 해.
- ③ 인물과 염소를 다른 소재들과 어떻게 연관 짓느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
- ④ 소재들이 무질서하게 나열되어 있어 작품의 의미를 하나로 해석해 내기는 어려워.
- ⑤ 나무와 염소젖을 짜는 여인의 대비를 통해 작품의 주제 의식을 형상화한 작품이야.

21. <보기>의 관점에서 위 글을 비판하고자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수용미학의 입장에서 볼 때, 작품은 작가와 독자 간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이므로 '작품'이라는 말 대신에 '텍스트'라는 말을 사용한다. 작가가 만든 '텍스트'는 수용자의 감상과 해석을 거쳐야 비로소 '작품'으로 탄생되기 때문이다.

- ① 모든 작품은 대체로 작가를 닮게 되어 있다. -세르반테스-
- ② 진리는 작품 속에 이미 완성된 형태로 존재한다. -헤겔-
- ③ 일상 세계를 작품으로 끌어들이는 사람들은 모두 예술가이다. -에릭 부스-
- ④ 작품의 의미는 이를 해석하는 독자의 주관적인 감상에 의해 비로소 꽃을 피우게 된다. -볼프강 이저-
- ⑤ 예술만큼 세계로부터 도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예술만큼 확실하게 세상과 맺어주는 것도 없다. -괴테-

[22~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들어올 때 그랬던 것처럼, 폭이 좁은 문을 빠져 나오는 사이 장롱의 옆구리가 또 동전만큼 뜯겨 나가고 말았다. 농의 한쪽을 부여잡고 그 무게로 숨이 턱에 닿고 있던 그는 ㉠ 새로 생긴 흠집을 자세히 들여다 볼 수는 없었다. 상앗빛으로 드러난 나무의 속살과 거친 나뭇결의 성난 부스러기가 옛 상처보다 한결 선명하게 도드라졌을 것이란 짐작만 할 뿐이었다. 그만그만한 생채기는 열 자짜리 장롱의 앞과 뒤에 이미 여러 개 있었다. 하는 수 없는 일이었다. 처음의 안타까움만 빼고 나면 생채기는 머지 않아 세월의 또 다른 무늬로 자리 잡을 것이었다.

지척거리는 걸음과 앞으로 쏠리는 무게 때문에 그는 이내 생채기 따위를 잊었다. 가로로 누워 있는 장롱은 마치 ㉡ 거대한 관(棺)처럼 서서히 비좁은 문을 빠져 나오는 중이었다. 왼쪽으로, 왼쪽으로 들어요. 들어 막힌 입에서 비어져 나오는 그런 목소리로 인부가 지시했고 그는 온 힘을 다해 왼쪽으로 조금 비껴났다. 비로소 사내의 힘줄 불거진 붉은 얼굴이 문 저쪽에서 나타났다. 엇비슷한 자세 때문에 한층 힘이 가중된 오른 손목에 경련이 일어나는 듯한 느낌이 왔다. 금방이라도 놓쳐 버릴 것 같은 손아귀의 아슬아슬함이 그를 긴장되게 했다.

생채기 없이 나머지가 완전히 문을 통과하기까지는 얼마큼 더 힘을 쏟아 부어야만 하나. 이제야말로 마지막 힘까지 다 쏟아 넣고 있다는 체념 때문에 그는 질끈 눈을 감았다. 목구멍 저 안에서부터 신음보다 더 고통스런 비명이 터져 나오려고 하였다. 천천히, 천천히 뒤로 빼요, 아니 아니, 뒤로 빼라구요! 사내는 이를 악물고 있는 듯 여겨졌다. 그는 사실로 이를 악물고 있었다. 뒤로, 왼쪽으로, 움켜잡고 있는 손아귀에 힘이 빠져 버리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다. 지금이라도 스프링 손이 풀려지고 있다는 느낌 때문에 등허리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더 이상은, 정말 더 이상은 곤란하다는 생각으로 사내의 때 낀 목장갑을 향해 입을 열려는데 마침내 사내가 들고 있던 쪽의 바닥이 마루에 놓이면서 무게는 급격히 감소되었다. 마루까지 빼내 오는 일은 어쨌든 성공한 셈이었다. 그때 사내가 마루문에 매달려 바깥을 향해 소리쳤다. 어이 장 기사. 일루 와 봐! 농 좀 들어 내자구. 권양반 힘 갖군 안 되겠어.

장롱을 내려 간 인부와 운전기사가 트럭에 기대서서 담배에 불을 붙여 물고 있는 게 보였다. 가파른 계단만이 삼십 개도 넘는 집이었다. 장롱을 내려가는 것만으로 충분히 진이 빠질 법한 계단이었다. 계단 밑으로는 간신히 차나 돌릴 수 있을 만큼의 공터가 있었다. ㉢ 울망출망한 것들이 으레 그렇지만 밝은 곳에 드러난 자신의 납루한 세간살이들을 보는 일은 언짢았다. 이곳 저곳에서 비죽이 드러나는 가난한 생활의 소도구들을 애써 외면하면서 그 역시 담배를 찾아 주머니를 뒤적거렸다. 바람이 거세어서 불을 붙이기가 썩 어려웠다. 칼끝보다 맵고 아린 추위였다.

(중략)

그 넓은 서울특별시외의 어디에도 불박여 있지 못한 자신의 삶을 되씹어 보고 싶지는 않았다. 전세 계약 기간이 6개월이었던 때부터 어머니와 둘이서 전세방을 떠돌기 시작했었다. 대학 졸업반이 되자 어머니는 지방의 누님네에서 올라와 그의 자취방에 합세했다. 결혼을 하면서 방은 불가불 두 개가 필요했고 이때까지 ㉣ 두 개의 방과 마루를 얻기 위해 악전고투하며 살아왔다는 느낌이었다. 방이 그들을 내쫓는 때도 있고 그들이 방을 버리고 떠난 때도 있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방이 그들을 내몰았다.

그렇게 수도 없이 이사를 다니며 얻은 결론은 한 가지, 집이 없으면 희망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희망이란, 특히 서울에서 살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이란 집과 같은 뜻이었다.

이제 그 희망을 갖기 위해 서울에서 떠나게 되었다. 그는 뭔가 기이하다는 느낌을 저버릴 수가 없었다. 넓고 넓은 서울에서 그는 여태껏 집을 갖지 못하고 살았다. 희망 없이 살았다는 말과도 다름이 없다. 그런데 이제 집을 가지게 되었다. 다른 것은 서울이 아니고 부천이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도 집과 희망은 동의어인가. 그는 대답을 찾지 못하였다. 아니 쫓겨 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거듭 생각하기는 하였다. 트럭의 짐칸에 처박혀 앉아서, 추위에 떠는 아내를 보면서 그는 낮게 한숨을 쉬었다. (중략)

트럭의 기사가 길을 찾지 못하고 소사동으로 접어든 것은 순전히 그의 탓이었다. 북덕방 영감이 시청을 찾아서 내려오라고 했던 것을 기억해 낸 것도 소사동 입구에서였다. 잠시 멈추었던 트럭은 이정표의 지시대로 시청을 찾아 시동을 걸었다.

“소사라면 소사 ㉔ 복숭아가 나는 곳 아녜요?”

이제 다 왔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아내는 제법 기운을 차리고 있었다. 복숭아란 말만 들어도 은혜 가졌을 때 생각이 나요. 얼마나 복숭아를 먹어 댔는지. 다른 것은 다 싫고 복숭아만 먹히 드라구요....., 그때 당신이 그랬죠. 뱃속에 든 이놈은 무릉도원에 서 노닐 팔자인 모양이라고.....

아내의 말에 그는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다. 하필 이런 순간에 그때의 케케묵은 기억을 꺼내 놓다니. 가나안에서 무릉도원까지. 그 멀고 먼 길을 달려오면서, 그것도 트럭의 짐칸에 실려 여기까지 오면서 아내는 기어이 또 하나의 희망을 만들어 놓기는 한 모양이었다.

시청을 지나면서부터의 길 안내는 그의 몫이었다. 관공서다운 위압감만 드러나 있는 흰색 건물을 지나고 나자 도로의 폭은 급격히 줄어들어서 트럭은 외마디 비명처럼 짧은 경적을 울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야만 했다. 여기저기에 난립한, 똑같은 모양의 집장사 집들이 공터들 사이에 어색하게 서 있는 한적한 거리를 몇 분 달리고 나자 비로소 그가 살아야 할 동네가 저 멀리에 펼쳐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주택가와 잇대어 있는 암회색의 어두운 공장지대와 굴뚝의 시커먼 그늘음이 보였다.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동네를 따라 길게 누워 있는, 병풍 같은 산자락 위에 드문드문 남아 있는 흰 눈이 어두운 하늘 밑에서 부연 먼지처럼 바래지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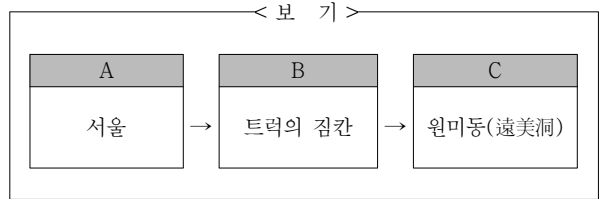
마침내 트럭은 멈추었다. 노모와 어린 딸과, 만삭의 아내를 이끌고 그는 이렇게 하여 멀고 아름다운 동네, 원미동(遠美洞)의 한 주민이 되었다.

— 양귀자, 「멀고 아름다운 동네」 —

22. 위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 인물의 시각을 중심으로 사건과 심경을 서술하고 있다.
- ② 인물이 예측하지 못한 사건을 삽입하여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 ③ 시점의 이동을 통해 중심인물의 태도가 바뀔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④ 서술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인물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다.
- ⑤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을 병렬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23. <보기>를 활용하여 위 글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를 설명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그’가 ‘희망’을 실현하지 못하고 지냈던 공간이다.
- ② B는 ‘그’에게 씁쓸함을 주는, 추위에 노출된 공간이다.
- ③ B는 ‘그’의 사색과 외부 세계 응시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 ④ C는 지명의 의미로 보아 ‘그’가 평소 정착을 소망하던 공간이다.
- ⑤ C는 ‘그’가 보기에, 아내가 희망을 품는다고 여기는 공간이다.

24. ㉑~㉔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 ‘그’에게 앞으로의 삶도 여전히 힘겨울 것임을 암시한다.
- ② ㉒ : ‘사내’와 ‘그’가 감당하기에는 힘겨운 이삿짐임을 알려 준다
- ③ ㉓ : ‘그’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 형편을 새삼 확인하게 한다.
- ④ ㉔ : ‘그’가 가장으로서 부담을 지고 살아왔음을 알려 준다.
- ⑤ ㉕ : ‘아내’로 하여금 ‘은혜’를 가졌을 당시를 회상하게 한다.

25. <보기>를 ‘아내’가 쓴 일기라고 가정했을 때, 위 글의 주제 의식으로 보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내 집에 살게 되었다는 호뭇같은 채 한 해가 지나지 않아 사라지고 말았다. 남의 집이 아닌, 내 집을 마련했다는 약간의 호뭇함이야 없지는 않았다. 그것마저 누리지 못할 바에야 굳이 서울에서도 한참 떨어진 부천의 원미동까지 흘러 들어올 이유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위안은 마음 한 켠에도 그리 오래 머물지 않았다. 우리가 그곳에서 쫓겨나 여기까지 오게 되다니, 하는 같잖은 느낌이 마치 문틈으로 연탄가스가 새어들 듯 조금씩 조금씩 우리 부부를 침식해 왔다.

- ① 더 나은 삶의 조건을 갖추려는 욕망을 비판하고 있다.
- ② 부평초처럼 떠도는 도시민의 삶의 애환을 그리고 있다.
- ③ 꿈은 멀리 있지만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음을 깨우쳐 준다.
- ④ 세속적인 행복보다 가족의 사랑이 중요함을 일깨우고 있다.
- ⑤ 가난 속에서도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둘 이상의 단어가 유의어 관계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 유의어를 검증하는 방법에는 교체, 대립, 배열이 있다.

교체검증은 문맥 속에서 유의어로 설정하고자 하는 단어를 교체해 봄으로써 그 진위를 찾는 방법으로 유의어 검증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다. 동일한 문맥에서 그 단어들을 교체하여 의미의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면 유의어로 인정한다. 유의어는 의미의 동질성과 함께 이질성도 가지므로, 교체검증은 유의어의 이질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도 중요한 방법이 된다.

예를 들어, ‘요사이 바빠서 너를 만날 틈이 없다.’라는 문장과 ‘요사이 바빠서 너를 만날 겨를이 없다.’는 문장에서 ‘틈’과 ‘겨를’은 문맥상 아무런 의미의 변화 없이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의어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유의어 관계에 있다 해도 의미가 완전히 동일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체가 가능한 경우는 없다. 즉, ‘틈’과 ‘겨를’ 사이에도 의미 차이가 있다. ‘내 몸집이 커서 저 틈 사이로 빠져나갈 수 없다.’라는 문장에서 ‘틈’을 ‘겨를’로 교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틈’과 ‘겨를’은 시간적 의미에서는 동질성을 갖지만 또 다른 문장으로 ㉠쓰임을 확대하면 이들의 의미 차이를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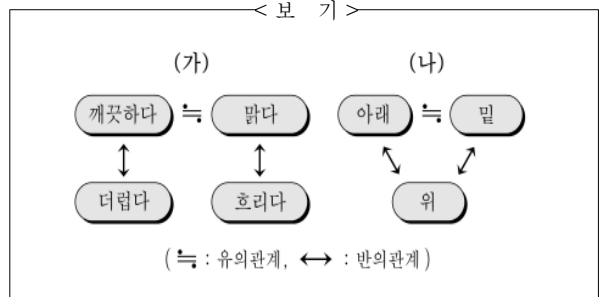
교체검증을 통해 두 단어 사이의 유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지만, 대립검증의 방법을 통해서도 이를 살펴볼 수 있다. 대립검증이란 대립되는 말을 찾아서 그 의미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구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만일 대립어가 동일하게 나타날 경우 두 단어 사이의 의미의 연관성이 매우 크다는 뜻이므로 두 단어는 유의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작다’와 ‘적다’의 경우에는 두 단어가 부분적으로 동질성을 가지지만, 각각의 대립어는 ‘크다’와 ‘많다’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처럼 부분적인 의미의 동질성을 가진 말이라도 대립어가 다르면, 두 단어 사이의 의미 차이는 대립어가 같은 경우보다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배열검증은 유사한 의미를 갖는 단어들을 한꺼번에 모아 놓고 그 차이를 살펴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불그레하다 - 붉다 - 새빨강다’는 서로 다른 색을 지칭한다. 이렇게 나열하면 그 차이를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불그레하다’와 ‘붉다’, 그리고 ‘붉다’와 ‘새빨강다’ 사이에 엄격한 경계선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불그레하다’와 ‘붉다’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색이 아직 명칭을 갖지 못한 경우 혹자는 ‘불그레하다’로, 혹자는 ‘붉다’로도 쓸 수 있는 것이다. 즉 이 경우 두 말 사이에 의미의 동질성이 확인되는 것이다.

26. 위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① 다양한 유의어 습득의 의의는 무엇인가?
- ② 유의어 검증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
- ③ 어떤 경우에 두 단어를 유의어로 인정하는가?
- ④ 어떤 상황에도 교체 가능한 두 단어는 존재하는가?
- ⑤ 활용 빈도가 가장 높은 유의어 검증 방법은 무엇인가?

27.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 ‘물이 깨끗하다’ 대신에 ‘맑다’를 넣어도 되므로, ‘깨끗하다’와 ‘맑다’는 유의 관계에 있다.
- ② (가)에서 ‘길레가 깨끗하다’의 ‘깨끗하다’ 대신에 ‘맑다’를 넣으면 의미가 통하지 않으므로 두 단어 사이에는 의미의 차이가 있다.
- ③ (나)에서 ‘아래’, ‘밑’의 대립어는 동일하게 ‘위’이므로, 두 말은 의미의 유사성 정도가 매우 크다.
- ④ (나)에서 ‘산 아래’의 ‘아래’는 ‘밑’으로 교체해도 되므로 두 말은 교체검증으로도 유의어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 ⑤ (가)의 ‘깨끗하다’와 ‘맑다’의 의미 차이보다, (나)의 ‘아래’와 ‘밑’의 의미 차이가 더 크다.

28. [A]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를 추가하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장자리’를 어느 지역에서는 ‘가생이’라고도 한다.
- ② ‘잡’, ‘호미’, ‘팽이’는 모두 농기구이지만, 용도는 서로 다르다.
- ③ ‘아버지’를 살아계실 때에는 ‘가친’, 돌아가셨을 때에는 ‘선친’이라 한다.
- ④ ‘산기슭’과 ‘산꼭대기’는 연결되어 있지만, 사람들은 이를 잘 구별하여 사용한다.
- ⑤ ‘실개천’과 ‘내[川]’는 물이 흐르는 폭을 구분하기 어려워 사람들이 흔히 혼동하여 사용한다.

29. <보기>를 참고할 때, ㉠과 유사한 단어 형성 과정을 보이는 말은?

< 보 기 >

㉠은 ‘쓰다’에서 비롯된 말이다. ‘쓰다’에 접사 ‘-이-’가 결합되어 ‘쓰이다’로 파생되었으며, 여기에 다시 접사 ‘-ㅁ(음)’이 결합되어 ‘쓰임’으로 파생되었다. 즉, ‘쓰임’은 두 번의 파생 과정을 겪은 것이다.

- | | |
|-------|-------|
| ① 끝맺음 | ② 눈웃음 |
| ③ 어울림 | ④ 오솔길 |
| ⑤ 헛수고 | |

[30~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A]

철학자 데카르트와 컴퓨터가 바둑을 두고 있다. 컴퓨터가 둘 차례에 시간을 끝자 데카르트가 말했다. “바둑을 두던 컴퓨터는 어딜 갔지?” 컴퓨터가 반응했다. “난 지금 계산하는 중이요.” 데카르트가 증얼거렸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렇다면 컴퓨터는 계산한다. 고로 컴퓨터는 존재한다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데카르트의 생각처럼 컴퓨터는 존재한다. 데카르트와 바둑을 두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이런 의문이 생겼다. ‘지금 나와 바둑을 두고 있는 컴퓨터가 과연 내 앞에 존재하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은 내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닐까? 컴퓨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있다. 하지만 그것을 의심하고 있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그렇다면 컴퓨터에게도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자아가 있을까?’

생명체의 몸은 다양한 세포들이 다양한 기관들을 만들면서 성장하고 변화한다. 그러면서 유기체로서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해 나간다. 자신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무엇이 해로운가를 본능적으로 감지하여 몸이 반응한다. 이것은 모든 생명체가 지니고 있는 ㉠ 본능적 자아의 기능이다. 본능적 자아는 관념적 자아와 구별된다. “나는 생각한다.” 또는 “나는 배고프다.”라고 하는 언어적 표현의 주체가 되는 자아는 관념적 자아이다.

인간의 자아의식은 관념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것은 관념적으로 만들어진 세계이며, 언어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세계이다. 언어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은 관념의 세계가 구체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관념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나의 생각’, ‘나의 세계’, ‘나의 마음’을 말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주관적 세계, 자율적 세계, 자기만의 세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데카르트에 의하면, 관념적 자아는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본능적 자아를 바탕으로 관념적 자아를 형성한다. 이렇게 볼 때 컴퓨터의 한계는 분명해진다. 인간만이 자주적이고, 자율적이며, 창조적인 존재일 수 있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30. 위 글의 특징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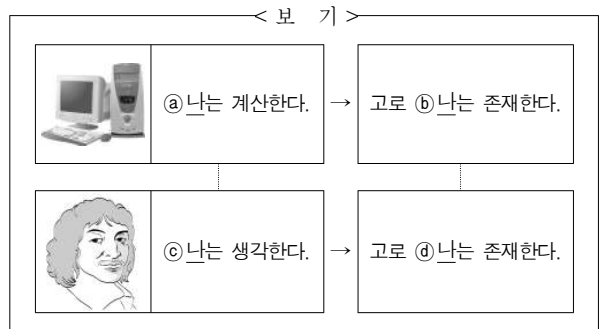
- ㄱ. 두 대상을 대비하여 서술하고 있다.
- ㄴ. 통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ㄷ. 상황을 가정해 놓고,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ㄹ.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31.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강아지는 태어나자마자 어미의 젖을 찾는다.
- ② 아기는 기저귀가 젖으면 울어서 엄마를 부른다.
- ③ 공이 갑자기 눈앞으로 날아오면 반사적으로 몸을 피한다.
- ④ 지진이 발생할 징후가 있으면 동물들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 ⑤ 화려한 버섯을 보면 사람들은 독버섯으로 의심하여 먹지 않는다.

32. [A]를 <보기>와 같이 도식화했을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은 성장하면서 변화하는 존재이다.
- ② ㉠은 ㉣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
- ③ ㉡와 ㉢는 모두 관념적 자아이다.
- ④ ㉢는 ㉠과 달리 언어적 표현의 주체가 되는 자아이다.
- ⑤ ㉣는 ㉡와 달리 본능적 자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33~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흠이민인 꿈실네는 자신의 붓독*에 잇달은 논외임자인 돈술을 사랑하고 있지만, 돈술은 그녀의 속마음을 알지 못한다. 돈술은 오직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자신의 벼포기에만 관심이 있다. 때문에 꿈실네는 돈술의 꼭 막힌 마음을 트게 하기 위해 붓독을 막아 양어장을 만들어 버린다. 눈에 델 물을 얻지 못하게 된 돈술은 꿈실네 집으로 달려가 붓독을 트라고 욕박지르지만, 꿈실네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돈술 노기등등해서 꿈실네에게 다가가는데 정 노인 하수*에서 등장, 분위기를 직감하고 바빠 걸어와 돈술의 앞을 가로막는다.

정 노인 (꾸짚듯) 돈술이. 자네 미쳤어? 아 이 꼴이 무엇이여. 이라지들 말어. 이라지 안 해도 다 될 일들을 갖꼬는…… (꿈실네에게) 어서 후딱 방으로 들어가세.

돈 술 (울화통이 치밀어) 아, 형님…… 생각 좀 해보시게라우. 이거 미칠 일이 아니요? 한사코 붓물을 못 트겠다니 어쩔 것이요?

정 노인 (의미 있게) 이 꿈 같은 놈아. 붓독은 터진다 터져! 다 터지게 된단 말이여!

돈 술 (영문을 몰라) 으쩌게라우?

꿈 실 네 (일어나서며) 붓독은 못 트요. 그렇게 한다고 터진대우?

돈 술 저것이?

정 노인 이러지들 말라 해도. (사이. 꿈실네에게) 꿈실네! 고분 고분 말로 해도 되네. 아, 돈술이놈 고집이 좀 세서 탈이제

차분하고 일 잘하고 사람이사 오직 좋으냐.

꼼실네 ㉠ (얼른) 그것을 누가 몰라서랴우!

정 노인 암! 아암- (돈술에게) 그라고 이 사람아. 매시럽고 갈끔하고 인물 좋고, 아, 여자 몸으로 40리 길 읍내를 하루에도 몇 번씩 뚝바구리 이고 날라대드니 그새 돈 모아서 양철집 짓고 방죽* 사고 동네가 쩡쩡 울리는 꼼실네 인품을 자네는 몰라? 영?

돈 술 ㉡ (얼른) 아, 그것을 누가 몰라!

꼼실네, 얼굴을 가리고 상수* 쪽으로 총총히 걸어간다.

돈 술 니 으디 가냐? 아조 결판을 내자고..... 결판내고 가.

꼼실네 나 꼼실이한테 마중 나가는데 무슨 상관이요? 장바구리 받아와야제..... 오랜만에 고기라도 구워야제. 흠애비 시래깃국 소금에다 절여 백일 참인가?(황급히 상수로 퇴장)

돈 술 (영문을 몰라) 저것이 무슨 꿈 같은 소리를 쫓알댄당가? 지길헐.

정 노인 글썽..... (사이. 돈술을 끌며) 하여튼 저리 좀 가세.

두 사람, 꼼실네 집에서 돈술의 집 마루로 와서 앉는다.

정 노인 자네, 제답*을 등제 방죽에다 부쳐먹을 참이제?

돈 술 형님도 원 말씀이라고 하시요? 아문..... 목줄이 끊어져도 붓둑은 트고 말 탕께.

정 노인 이 미련한 놈아. 그렇게 눈치가 없어? 말년에 들어서 의지하고 살면 올매나 좋아? 꼼실네 같은 재취감이 으디 있는 줄 알아?

돈 술 아니, 형님도 인자 망령이세?

정 노인 내가 으제 망령이여? 꼼실네가 자네를 올매나 좋아하는지 앙가? 등제 방죽에 붓둑을 막은 이치는 꼼실네가 자네하고 말문 틀라고 한 것이여.

돈 술 (벌떡 일어나며) 형님. 망령이요, 망령. 나도 사내요. 나도 큰 이십 년을 흠애비 독수공방 지낸 놈이고..... 그라제만 이번 일은 틀려. 저 꼼실네가 분명히 날 잡아먹겠다고 눈에다 불 쓰고 지랄이란 말이요!

정 노인 허참- 이봐. 자네 아들 준섭이가 뭐라고 한 줄 앙가?

돈 술 뭐? 우리 준섭이가? 뭐라고?

정 노인 입대할 때 나한테만 그러대. 꼼실네하고 자네하고 혼사만 올리는 것만 보면 죽어도 원 없겠다대.

돈 술 설마? 내가 저 하나 땀서 이렇게 흠애비 신세인 줄 뻔히 알텐디 (사이. 버럭) 형님. 그런 말씀 하실라면 당장 가세요. 어서! 무담씨 화해시키고 싶으께 엉뚱한 준섭이 놈까지 대다가는- 준섭이가 그럴 리 없제.

정 노인 그래, 끝내 싸울 참이여?

돈 술 아문! 대가리가 쪼개져도 할 판이께! 요 지집년을 아조 찍여놔야 쓰겠어.

정 노인 (발끈) 꿈 같은 놈 같으니! 마음대로 해라. 마음대로 해!

정 노인, 화가 나 총총 하수로 퇴장. 사이. 상수에서 꼼실네와 꼼실이 들어온다. 꼼실네는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 꼼실이는 손에 바구니를 들었다. 기미를 챜 돈술, 얼른 울타리에다 바짝 눈을 대고 동정을 살핀다.

- 천승재, 「붓물은 터졌어랴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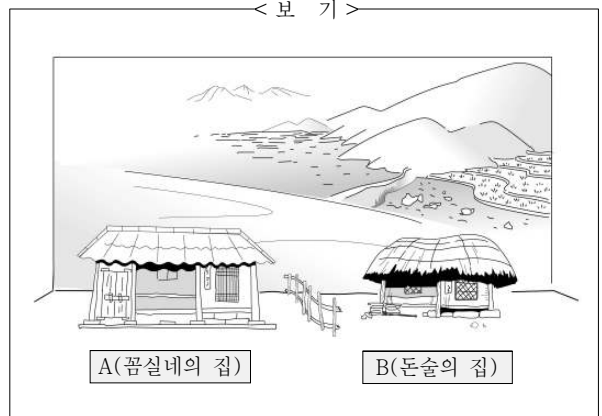
- * 붓둑 : 눈에 물을 대기 위한 수리 시설인 보의 물을 막아 놓은 둑
- * 하수(下手) : 관객석에서 보았을 때 무대의 오른쪽을 가리킴.
- * 방죽 : 파거나, 둑으로 둘러막은 못
- * 상수(上手) : 관객석에서 보았을 때 무대의 왼쪽을 가리킴.
- * 제답(祭答) : 수확물을 조상의 제사에 쓰기 위하여 마련한 논

33 '정 노인'의 역할로 적절한 것은?

- ① 경험담을 이야기하며 사건을 반전시키고 있다.
- ② 관객들에게 인물의 심리 상태를 설명하고 있다.
- ③ 인물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 ④ 객관적인 입장에 서서 사건의 추이를 관망하고 있다.
- ⑤ 인물들의 행위와 전개되는 사건의 가치를 논평하고 있다.

34 <보기>는 위 글을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꾸민 무대 장치이다.

이를 활용하여, 위 글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꼼실네'는 반어적 표현으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A에서 드러나는 갈등의 근본 원인이 B에서 밝혀지고 있다.
- ③ '꼼실네'가 퇴장하면서 '정 노인'과 '돈술'은 B로 이동하고 있다.
- ④ B로 공간이 이동하면서 A에서 드러난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
- ⑤ A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정보가 B에서는 '정 노인'에 의해 제시되고 있다.

35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 : '정 노인'의 말에 실망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다.
- ② ㉠ : '돈술'에 대한 반감이 드러나 있다.
- ③ ㉡ : '꼼실네'의 변화를 기대하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다.
- ④ ㉡ : '정 노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심리가 담겨 있다.
- ⑤ ㉠, ㉡ : '정 노인'의 처신을 못마땅해 하는 의식이 투영되어 있다.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최근 해양박테리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연구하던 과학자들이 물속에서 전류를 걸어 주면 왼손박테리아와 오른손박테리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밀쳐 내어 분리되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실험실에서 ‘거울상’ 분자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분리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19세기까지만 해도 화학자들은 타르타르산과 라세미산은 같은 화합물이라고 생각했다. 둘 다 다른 물질에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했고, 맛이나 물리적 특징에도 다른 점이 없었다. 그런데 그 용액에 편광*을 비추면 타르타르산은 편광면을 구부러뜨리지만 라세미산은 그렇지 않았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 어 보려 했으나 아무도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

이들 처음으로 관찰하고 설명한 과학자는 저온살균법으로 널리 알려진 파스퇴르다. 파스퇴르는 타르타르산과 라세미산의 용액을 다른 비커에 넣고 결정을 키웠다. 그리고 현미경으로 결정을 관찰했더니 라세미산에는 왼손과 오른손 관계와 같이 서로 거울상인 결정들이 똑같은 양으로 들어 있었다. 그러나 타르타르산에는 같은 형태의 결정뿐이었고, 그것은 라세미산에서 생긴 결정 중 한 가지와 모양이 똑같았다. 파스퇴르는 족집게를 이용해 라세미산에서 생긴 다른 모양의 결정들을 각각 분리한 다음, 그것으로 용액을 만들어 편광을 비추었다. 그러자 한 용액은 편광면을 시계 방향으로 구부러뜨리는 데 반해, 다른 용액은 반시계 방향으로 구부러뜨렸고, 두 용액을 반반씩 혼합한 것은 편광면을 구부러뜨리지 않았다. 이것으로부터 파스퇴르는 편광이 각각의 입자들을 통과하는 방식 때문에 편광면의 구부러짐에 차이가 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타르타르산의 분자가 비대칭 형태이며, 서로 거울상 관계에 있는 두 종류의 분자가 있다고 추론했다. 이러한 거울상 관계에 있는 분자들을 손대칭 분자라 하는데, 왼손분자와 오른손분자는 절대 포개 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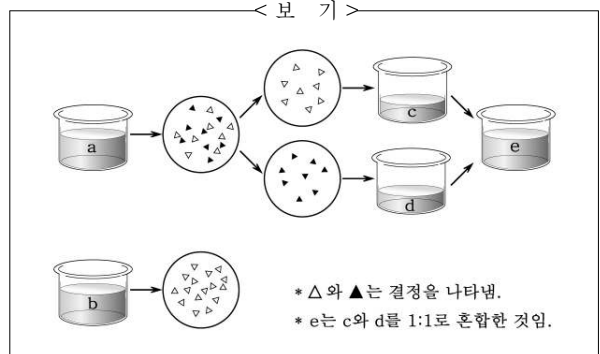
손대칭 분자는 특히 약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신약을 만드는 데 필요한 화합물을 합성하면 왼손분자와 오른손분자가 1:1로 섞인 물질이 생성되는데, 이 둘은 물리적 성질이 같아서 분리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만약 이 두 화합물을 분리하지 않으면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 탈리도마이드*의 한 형태는 임산부들의 입덧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나 그것의 거울상은 태아의 발육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에탐부톨*의 한 형태는 결핵에 효과가 있는 반면, 다른 형태는 실명(失明)을 유발한다. 그러므로 효율 좋은 비대칭 촉매의 개발은 어렵지만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다.

*거울상 : 거울에 비친 것처럼 좌우가 서로 반대인 상
*편광 : 일정한 평면에서만 진동하는 빛
*탈리도마이드 : 임산부들의 입덧 방지용으로 판매되었던 약
*에탐부톨 : 결핵 감염증 치료에 쓰이는 합성 약제

36 위 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비대칭 분자 구조의 다양성
- 라세미산과 타르타르산을 중심으로
- ② 비대칭 분자 연구의 최근 동향
- 해양박테리아 분리 실험을 중심으로
- ③ 손대칭 분자의 효과적인 합성 방안
- 인공 촉매 개발을 중심으로
- ④ 손대칭 분자 특성의 이해
- 왼손분자와 오른손분자를 중심으로
- ⑤ 손대칭 분자 구조의 발견
- 19세기 화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중심으로

37. <보기>는 [A]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는 라세미산의 용액, b는 타르타르산의 용액이다.
- ② a로부터 형성된 결정들은 서로 거울상 관계에 있다.
- ③ b와 c는 맛이나 물리적 특징에 차이가 없는 용액이다.
- ④ c와 d에 각각 편광을 비추면 서로 반대 방향으로 구부러진다.
- ⑤ e를 통과한 편광은 왼쪽과 오른쪽으로 번갈아가며 구부러진다.

38. ㉠과 성격상 가장 유사한 사례는? [1점]

- ①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리모넨은 어떤 종류는 레몬향이 나지만, 다른 종류에서는 오렌지향이 난다.
- ② 보톡스는 근골격계 경련을 치료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지만, 피부 미용과 성형에 훨씬 많이 사용된다.
- ③ 관절염이나 편두통에 사용하는 진통제 나프록센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이지만, 간에는 독성을 일으킨다.
- ④ 식물이 해충과 포식동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독성이 강한 화합물이 식품의 일부가 되어 인체에 영향을 준다.
- ⑤ 소녀의 윗부분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은 숙면을 유도하는 효능 외에 체내에서 산화작용을 막아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웃소싱(outsourcing)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해 온 기능이나 서비스를 위탁 계약을 맺고 외부에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자본과 업무에 대한 내부 소유권을 포기하고 외부 전문업체의 자원과 시스템을 필요에 따라 이용하자는 것이다. 현재 많은 기업이 자신의 핵심 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부문을 외부로 위탁하고 있다. ㉠ 기업인들은 기업의 일차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업무가 아니라면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나) 아웃소싱의 초기 단계는 주로 생산 부문에서 시작하여 점차 그 영역이 판매와 정보처리시스템 등 기업의 경영 활동 전반으로 확산되었다. 그리고 컴퓨터, 소프트웨어, 통신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 기업들은 외부 전문업체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물류, 시설 관리 등 외부 기능 분야와 자체 기술 개발이 어려운 소프트웨어 개발, 법무, 광고 분야 등 외부 전문업체를 이용하기 쉬운 분야에서는 예전부터 아웃소싱을 이용해 왔다.

(다) 기업들이 꼽는 아웃소싱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웃소싱을 하면 기업은 핵심 전략 분야에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조직을 유지하는 데에는 필요하지만, 수익 창출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분야를 외부 전문업체에 맡길 수 있다. 둘째, 아웃소싱을 하는 기업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업체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셋째, 고가의 설비 구입 또는 기업의 수익 창출에 직결되지 않는, 주변적인 업무의 인프라 구축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끝으로, 상품의 주기가 점점 짧아짐에 따라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아웃소싱을 통해 장기적 소유에서 단기적 접속으로 과감히 방향을 전환하는 기업은 경쟁에서 한 발 앞서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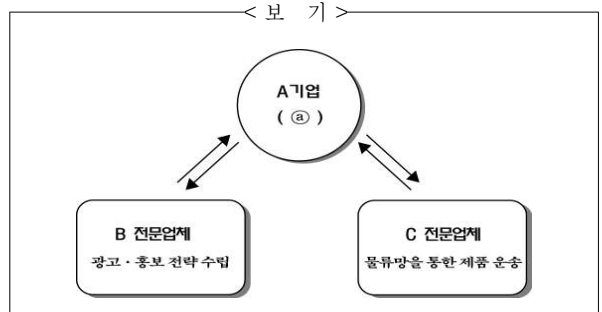
(라) 한편, 아웃소싱을 이용하는 과정에 일부 위험이 동반되기도 한다. 우선 기업이 장기적으로 아웃소싱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능력을 상실하고 외부 전문업체에 대한 통제력 및 산업 주도권을 상실하기도 한다. 또한 특정 분야의 아웃소싱이 추진될 경우 기업체 내 해당 분야의 직원과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아웃소싱을 지원하는 외부 전문업체에 의해 기업의 내부 기밀이나 핵심 기술이 노출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 없이 아웃소싱을 추진할 경우 기업은 예상치 못한 위험에 직면할 수도 있다.

(마) 21세기는 아웃소싱 전문업체의 확산에 따라 수직 계열의 구조가 약화 내지 붕괴되고, 기업과 외부 전문업체들이 네트워크 형태로 수시로 접속할 것이다. 따라서 아웃소싱 전문업체들은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아웃소싱 성장에 대비해야 한다. 기업들은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외부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하며, 외부 전문업체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기업과 외부 전문업체 간에 상생 협력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감시자 역할에 충실해야 하며 아웃소싱에 관한 육성법과 제도를 제정하는 등 정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39. (가)~(마)를 도식화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나)- $\left[\begin{smallmatrix} \text{(다)} \\ \text{(라)} \end{smallmatrix} \right]$ -(마) ② (가)-(나)-(다)- $\left[\begin{smallmatrix} \text{(라)} \\ \text{(마)} \end{smallmatrix} \right]$
- ③ (가)- $\left[\begin{smallmatrix} \text{(나)} \\ \text{(다)} \end{smallmatrix} \right]$ -(라)-(마) ④ (가)- $\left[\begin{smallmatrix} \text{(나)} \\ \text{(다)} \end{smallmatrix} \right]$ - $\left[\begin{smallmatrix} \text{(라)} \\ \text{(마)} \end{smallmatrix} \right]$
- ⑤ (가)- $\left[\begin{smallmatrix} \text{(다)} \\ \text{(라)} \\ \text{(나)} \end{smallmatrix} \right]$ -(마)

40.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기업은 B, C 전문업체와 장기적인 소유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유리해.
- ② ㉠에는 제품 생산, 연구 개발 등 경영 핵심 전략 분야가 포함될 거야.
- ③ A기업이 가변적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
- ④ A기업은 네트워크를 통해 주변적인 업무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거야.
- ⑤ B, C 전문업체에 맡긴 아웃소싱 분야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A기업은 해당 분야에 대한 주도권을 잃을 수도 있어.

41. ㉠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국가는 기업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 ② 기업의 경영 실적은 시장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 ③ 기업인들은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윤을 추구한다.
- ④ 경영 전문가는 기업의 외적 성장에 많은 관심을 지닌다.
- ⑤ 기업 경영의 목적은 기업 간 상호 협력을 실현하는 데 있다.

42. ㉡과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철수는 박사 학위를 받았다.
- ② 그녀는 결혼 날짜를 받았다.
- ③ 영희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았다.
- ④ 둘은 달빛을 받으며 나란히 앉았다.
- ⑤ 그는 내 노래를 받아 가곡을 불렀다.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고대 유물의 정확한 제작 연대를 측정하는 작업은 고대사를
③ 밝히는 데 매우 중요하다. 과학자들은 방사성탄소동위원소(^{14}C)
의 양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유물의 나이를 알아내고 있다.

탄소(^{12}C)는 원자번호가 6번인 원소로 양성자 6개와 중
성자 6개로 이루어져 있지만, 유물의 연대 측정에 쓰이는
탄소는 중성자가 8개인 희귀한 탄소(^{14}C)이다. ^{14}C 는 ^{12}C 와
성질이 같지만 질량수가 다른 동위원소로서 대기 중의 질
소(^{14}N)가 우주선(宇宙線)과 반응해서 만들어진다. 우주선
이란 우리 은하 전체를 날아다니는 입자들의 흐름인데, 지
구로 쏟아지는 우주선이 질소와 부딪치면 그 충격으로 인
해 질소의 양성자는 하나 줄고, 중성자는 하나 늘어나게 된
다. 원래 질소는 원자번호가 7번인 원소로 양성자와 중성자
가 각각 7개이지만, 우주선과 부딪치면서 양성자는 6개, 중
성자는 8개인 원소로 바뀌게 된다. 원자의 성질은 양성자에
의해 결정되므로, 이제 이 원소는 질소가 아니라 원자번호
가 6번인 탄소(^{14}C)로 바뀐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기 중에
 ^{12}C 가 1조(兆, 10^{12}) 개 있다면 ^{14}C 는 1개 정도가 존재할
정도로 희귀하다.

[A]

생물체의 몸은 공기를 통해 받아들인 탄소를 중심으로 하
는 유기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동·식물은 대기를 호흡하
기 때문에 이들 동·식물의 내부에는 일반탄소인 ^{12}C 와 희
귀탄소인 ^{14}C 의 비율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동·식
물이 죽어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면, ^{12}C 는 거의 변함이 없
는 데 반해 방사성원소인 ^{14}C 는 붕괴되어 점점 줄어든다.
결국 ^{14}C 는 붕괴되어 다시 질소로 돌아가는데, 일반적으로
방사성탄소동위원소의 경우 원자핵이 방사선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원자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때 원자 중에 붕괴되지 않고 남은 원자 개수가 처음의 반이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半減期)’라고 한다. 반감기는
원소에 따라 다양한데, ^{14}C 의 경우는 5,730년이다.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 유물의 나이를 알 수 있게 된다. 즉 ^{14}C 의 양을 측정하
면, 1조(兆)분의 1이라는 기준 비율보다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계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물이나 미라의 샘플 속에 포함된
 ^{14}C 의 양을 측정한 결과 ^{12}C 에 대한 농도가 2조(兆)분의 1이라
면, 그 유물의 나이는 5,730년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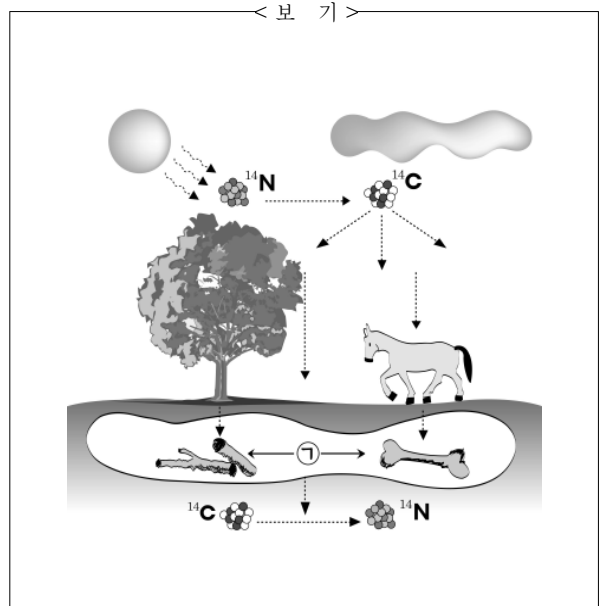
그런데 측정시료를 그대로 측정기에 넣는다고 곧바로 연대가
계산되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측정시료는 대부분 많은 불순물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불순물이 포함된 시료로 측정
하면 오차가 커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정확한 연대
측정을 하려면 시료로부터 순수한 탄소를 ㉞ ㉞ 뽑아내는 고도의
정밀 작업을 먼저 해야만 한다.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은 매우 유효한 방법이지만, 1회 측
정에 다량의 탄소시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결정적인 단점이다.
그런데 귀중한 문화재의 경우, 측정을 위해 몇 그램(g)이나 되
는 탄소시료를 떼어 낸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런 문
제를 해결한 것이 1970년대 후반에 등장한 가속기 질량분석기
이다. 이 기기를 사용하면 불과 0.001g의 탄소시료로도 정확한
연대 측정을 할 수 있다. 즉 이전 필요량의 약 1000분의 1로도
연대 측정이 가능해진 것이다.

43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대기 중의 ^{14}C 와 ^{12}C 의 비율이 유물 연대 측정의 관건이다.
- ② ^{14}C 와 ^{12}C 는 대기 중에서 일반적으로 ‘1:1조(兆)’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 ③ 가속기 질량분석기의 등장으로 비로소 순수한 탄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 ④ 측정시료의 양을 적게 하면 불순물이 적어지므로 측정 오차
를 줄일 수 있다.
- ⑤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원자가 방출하는 방사선의 양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44 <보기>는 [A]의 과정을 개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㉞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적절한 것은?



- ① 토양에 함유되어 있는 ^{14}C 를 받아들이고 ^{14}N 을 내놓는다.
- ② 몸속에 남아 있는 ^{14}C 는 토양 속의 ^{12}C 와 반응하여 ^{14}N 으로
바뀐다.
- ③ ^{14}C 는 지상으로 쏟아지는 우주선에 의해 반응을 일으키며 줄
어든다.
- ④ ^{14}C 와 ^{12}C 의 비율을 조절하기 위해 과다하게 남아 있는 ^{12}C 를
방출한다.
- ⑤ 외부의 탄소가 유입되지 않으면서 동·식물의 몸속에 있던
 ^{14}C 가 점점 줄어든다.

45.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의 질문에 답을 구했을 때, 적절한 것은?

— < 보 기 —

○○대학교 고고학과 유물 발굴팀은 최근 △△지역 유적지 발굴 현장에서 몇 점의 유물을 발견하였다. 이 유물의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 유물에 포함되어 있는 탄소동위원소(¹⁴C)의 양을 측정하였더니 처음 양의 12.5%였다. 이 유물은 대략 몇 년 전의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겠는가? (단, 반감기 5,730년을 편의상 6,000년으로 하여 계산할 것.)

- ① 6,000년 ② 12,000년 ③ 18,000년
④ 36,000년 ⑤ 48,000년

46. ㉠, ㉡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한 것은?

- | ㉠ | ㉡ |
|------------|----------|
| ① 규명(糾明)하는 | 추출(抽出)하는 |
| ② 규정(規定)하는 | 추인(追認)하는 |
| ③ 표명(表明)하는 | 선별(選別)하는 |
| ④ 표방(標榜)하는 | 색출(索出)하는 |
| ⑤ 명명(命名)하는 | 발채(拔萃)하는 |

-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명나라 때, 옥포산에 한 노루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노루는 산중의 짐승들을 초대하여 잔치를 열었다. 호랑이를 제외한 사슴, 토끼, 원숭이, 여우, 두꺼비, 고슴도치 등 여러 짐승들이 잔치에 참석하였다.

토끼 모든 손님을 돌아보며 가로되,

“내 일찍 들으니 조정(朝廷)엔 막여작(莫如爵)이요 향당(鄉黨)엔 막여치(莫如齒)라* 하오니 부질없이 다투지 말고 나이에 따라 자리를 정하소서.”

노루가 허리를 숙이고 펄쩍 뛰어 내달아 왈,

“내가 나이 많아 허리가 굽었노라. 상좌에 앉음이 마땅하다.”

하고, 암탉의 걸음으로 엉금엉금 기어 상좌에 앉으니, 여우란 놈이 생각하되,

‘한갓 허리 굽은 것으로 나이 많은 체하고 상좌에 앉으니 낸들 어찌 나이 많은 체 못하리오.’ 하고 수염을 쓰다듬으며,
“내 나이 많아서 수염이 세었노라.”

노루 답하기를,

“네 나이 많다 하니 어느 갑자에 났느냐. 호패를 올리라.”

하니 여우 답하기를,

“소년 시절에 기생집에 다닐 적에 술이 대취하여 오다가 대신(大臣) 가시는 길을 건넜다 하여 호패를 빼앗겨 이때까지 찾지 못하였거니와, 천지개벽한 후 처음에 황하수(黃河水) 치던 시절에 나더러 험세다고 가래장부 되었으니 내 나이 많지 않으리오. 나는 이렇거니와 너는 어느 갑자에 났느냐.”

노루 답하기를,

“천지개벽하고 하늘에 별 박을 때 나더러 궁통(窮通)*하다 하여 별자리를 분간하여 도수를 정하였으니 내 나이 많지 않

리오.”

하고 둘이 상좌를 다투거늘 두꺼비 곁에 었드렸다가 생각하되,
‘저놈들이 서로 거짓말로 나이 많은 체하니 낸들 어찌 거짓말을 못하리오.’

하고 공연히 건넛산을 바라보고 슬피 눈물을 흘리거늘, 여우 꾸짖어 말하기를,

“저 흉한 놈은 무슨 슬픔이 있기에 남의 잔치에 참례하여 상상지 못한 형상을 보이느냐.”

두꺼비 말하기를,

“저 건너 고양나무를 보니 자연 슬퍼서 그러하노라.”

여우 말하기를,

“고양나무 빈틈으로 네 고조 할아버지가 나오던 구멍이나, 어찌 슬퍼하느냐.”

두꺼비 정색하고 말하기를,

“내 슬퍼하는 바를 들어 보라. 소년 때에 저 나무 세 주(株)를 심었더니, 한 주는 만아들이 별 박을 때에 방망이로 베어가고, 또 한 주는 둘째 아들이 황하수 칠 때에 준천부사(濬川府使)하여 가래장부*하라 하고 베었더니 그 나무 배인 동티로 두 아들이 다 죽고, 다만 저 나무 한 주와 내 목숨만 살았으니, 내 그때 죽고만 싶되 천명인 고로 이때까지 살아 있다가 오늘날 저 나무를 다시 보니 몹시 슬프도다.”

여우 말하기를,

“진실로 그러하면 우리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높단 말이냐.”

두꺼비 답하기를,

“네 아무리 미련한 짐승인들 그 중에 소견이 있을 것이니 생각하면 네 고고조 존장(尊長)이 넘으리라.”

토끼 이 말을 듣고 끓어 여쭙되,

“그러하시면 두껍 존장이 상좌에 앉으소서.”

두꺼비 사양하고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나이 많은 이 있으면 상좌할 것이니 좌중에 물어 보라.”

한대, 좌객이 다 가로되,

“우리는 하늘에 별 박고 황하수 친단 말도 듣지 못하였으니 다시 물을 바 없다.”

하거늘, 그제야 두꺼비 펄쩍 뛰어 상좌하자, 여우가 두꺼비에 상좌를 빼앗기고 억울하여 두꺼비에게 회롱하여 말하기를,

“존장은 하늘도 구경하였소이까?”

“너는 하늘을 구경하였느냐?”

“내 하늘을 구경한 지 오래지 않으니 상세히 말하리다. ... (중략)... 구경을 다한 후에 한 곳에 다다르니 한 노인이 있거늘 동자를 명하여 차 한 그릇과 술 석 잔을 주면서 또 품속에서 붉은 구슬을 주며, 그 구슬을 먹고 그 길로 인간 세계에 내려오게 되었소이다.”

[A] “그 때 나도 남극 노인성과 더불어 바둑을 두다가 술이 대취하여 난간에 의지하였더니 문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을 깨어 동자더러 물으니 동자가 대답하되, 밖에 어떠한 짐승이 빛은 누르고 주둥이는 뾰족한 도둑개 같은 것이 똥밭에 왔다갔다하기에 동자를 시켜 긴 장대로 쫓으라 하였더니 그때 네가 왔나 보구나.”

여우가 어이없이 물러나 앉았다.

(중략)

여우 또 물어 말하기를,
 “그러하면 등이 굽고 목청이 움츠러졌으니 그는 어찌 한 연고 이니이까.”
 두꺼비 답하기를,
 “평양감사로 갔을 때에 마침 중추 팔월이라 연광정(練光亭)에 놀음을 배설하고 여러 기생들로 녹의홍상(綠衣紅裳)에 초립(草笠)을 씌워 좌우에 앉히고, 육방(六房) 하인을 대하여 세우고 풍악을 갖추고 술이 대취하여 노닐다가 술김에 계단 아래에 떨어져 곱사등이 되어 길던 목이 움츠러졌음이라. 술을 먹다가 종신(終身)을 잘못할 듯하기로 지금은 밀발 근처에도 가지 않느니라. 이른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
 여우 또 묻기를,
 “존장의 턱 밑이 벌떡벌떡 하시는 것은 웬일이오니까?”
 두꺼비 답하기를,
 “너희 놈들이 어른을 몰라보고 함부로 하기에 분을 참노라고 자연 그러하도다.” 인하여 가로되,
 “말씀이 무궁하여 재미가 부족하니 좌객이 다 술에 취하고 날이 장차 함지(咸池)에 들라 하오니 그만저만 잔치를 마칠 것을 고하사이다.”

- 작자 미상, 「두껍전」 -

- * 조정(朝廷)엔 ~ 막여치(莫如齒)라 : 조정에선 벼슬이 제일이고 향당에 선 나이가 제일이라.
- * 궁통(窮通) : 성질이 가라앉고 진득하여 깊이 궁리를 잘함.
- * 준천부사(濬川府使) 가래장부 : 개천 치는 일을 맡은 관청의 우두머리

47.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적 배경을 설정하여 인물의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② 보여주기 기법을 구사하여 극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 ③ 사건의 흐름을 빠르게 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서술 시점을 바꾸어 가면서 사건을 다양하게 조망하고 있다.
- ⑤ 이야기 속에 또 하나의 이야기가 들어 있어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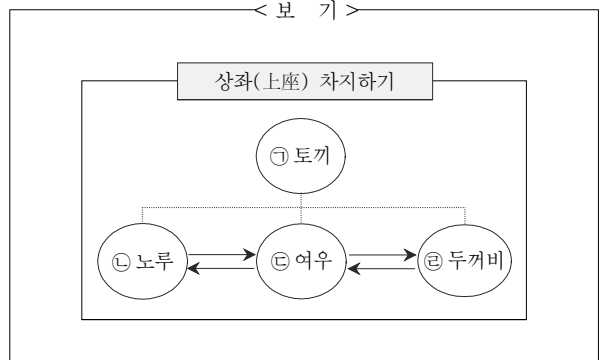
48. <보기> 중, 위 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의문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 보 기 >

- ㄱ. 상좌를 차지한 등장인물은 누구인가?
- ㄴ. 여우의 질책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은 인물은 누구인가?
- ㄷ. 노루가 동물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푼 이유는 무엇인가?
- ㄹ. 자리다툼으로 인해 일어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49. <보기>는 인물 간의 대화 양상을 도식화한 것이다. 인물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상황을 조정하기 위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② ㉡ : 외양을 주장의 논리적 근거로 삼고 있다.
- ③ ㉢ : 중론(衆論)을 받아들여 갈등을 해결하고 있다.
- ④ ㉣ : 상대방의 의도를 간파하고 거짓말로 대응하고 있다.
- ⑤ ㉢, ㉣ : 각자 자신의 주장에 따른 근거를 들고 있다.

50. [A]에 대한 독자의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상황이 엉망으로 꼬였군. 설상가상(雪上加霜)이야.
- ② 방약무인(傍若無人)이라더니 눈에 보이는 게 없군.
- ③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지, 부끄러운 줄 모르는군.
- ④ 대범하지 못해 노심초사(勞心焦思)하는 모습이 역력하군.
- ⑤ 허풍을 떨고 있는 걸 보니, 허장성세(虛張聲勢)가 심하군.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